바이오벤처, 줄줄이 코스닥행

쎌 · 렉스진 · 에스디 … 경영실적 회복에 등록요건 완화로

코스닥 시장을 노크하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바이오벤처기업들의 영업실적이 회복되고 있고, 코스닥 등록기준 또한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쎌바이오텍(대표 정명준)과 렉스진바이오텍(대표 권석형)이 코스닥 등록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에스디(대표 조영식)가 10월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 크리스탈지노믹스(대표 조중명) 한스바이오메드(대표 황호찬) 바이로메드(대표 강대연)등이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쎌바이오텍은 공모절차 등을 거쳐 11월 첫거래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 김완주 회장은 "바이오 벤처들이 앞다퉈 코스닥 입성을 시도하고 나서면서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장기간 고전하고 있는 바이오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휴먼게놈 뿐만 아니라 미생물 발효, 효소, 호르몬, 장비 분야 등에서 바이오 벤처가 코스닥에 등록함으로써 테마주를 이뤄야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단시약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에스디도 10월 하순께 코스닥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대우증권과 주간사 계약을 맺고 코스닥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공모절차 없이 직등록을 추진해온 바이오니아도 최근 코스닥 등록제도가 개선될 것에 대비해 2003년 초 공모를 통해 코스닥에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2002년 경영실적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2003년 초 전체 지분의 10% 이상을 분산시켜 코스닥 등록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2001년 코스닥 등록에 실패한 한스바이오메드도 11월 등록 예비심사 청구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들과 바이오 벤처기업인, 바이오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참여하는 [바이오 벤처기업 코스닥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간담회] 9월25일 열린다.

일반 제조업 등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등록기준으로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벤처기업들을 평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바이오 벤처들의 코스닥 등록이 사실상 어려워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바이오 벤처들이 코스닥에 등록해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전망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01>